

배포일시	2018. 7. 23.(화) 11:00 (총 2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관 측 과	담당자	관측과장 김 성 진	전화번호	051-718-0354

## 울산 및 경남 일부지역 올해 첫 열대야 발생

- 울산 작년보다 10일 늦어 -

- 어젯밤(7월 22일) 최저기온이 울산 25.2℃, 양산 25.2℃, 의령 25.1℃, 남해 25.0℃를 기록하여 **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**하였으며, 부산은 24.9℃를 기록하였다.
- 작년과 비교하여 울산은 10일, 양산은 9일, 남해는 1일 늦게 발생하였으며, 의령은 3일 일찍 발생하였다.
- 이번 열대야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다.

【 주요지점 7월 22일 밤 최저기온 현황(단위 : °C) 】

구분	부산	울산	창원	진주	김해	양산	의령	남해
최저기온	24.9	<b>25.2*</b>	24.3	23.7	24.7	<b>25.2*</b>	<b>25.1*</b>	<b>25.0*</b>
2018년 첫 열대야 발생일	7.11	7.12	7.20	7.26	7.18	7.13	7.25	7.21

\* 열대야가 관측된 지점

※ **(열대야란?)** 최저기온(18:01~ 익일 09:00)이 25℃ 이상인 날, 기온이 밤에도 25℃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함

- 최근 10년간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부산이 22.2일, 울산이 14.4일, 창원이 16.9일이었다.

【 최근 10년간 주요지점 열대야 발생 일수 】

연도	2018	2017	2016	2015	2014	2013	2012	2011	2010	2009	평균
부산	37	19	30	11	6	30	29	19	37	4	22.2
울산	22	13	13	14	8	34	18	6	12	4	14.4
창원	22	24	20	4	6	25	24	12	27	5	16.9

- 울산과 경남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10시를 기해 부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. 내일 (24일)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으면서 매우 덥겠고,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낮 최고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으니,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